

고미타케 신사

고미타케 신사는 후지 스바루 라인 고고메 터미널 주변의 레스토랑과 기념품 가게 뒤편의 간신히 트인 평탄한 장소에 있습니다. 이 평탄한 부분은 사실 14,000 년 전부터 화산 활동을 시작해 후지산을 형성한 용암류에 의해 그 대부분이 삼켜져버린 고미타케 화산의 정상입니다. 고미타케 신사는 후지산 주변의 여러 신사에서 모셔지는 고노하나사쿠야히메의 누이인 이와나가히메를 모시고 있습니다.

고고메(5 부 능선) 주변 구역은 '텐구의 마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텐구는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가진 전설 속의 마물로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에 산다고 여겨집니다. 매년 여름에는 신사 주변을 지배한다고 여겨지는 텐구의 모습으로 분장한 두 사람에 의해 개산(야마비라키) 의식이 거행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경내에 있는 거대한 도끼는 텐구에게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참배자는 이 도끼를 자유롭게 들어 올려도 되지만 가끔 오는 스모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공하지 못합니다.

나카노미야

후지코 순례자를 위해 1847 년에 만들어진 삽화가 포함된 가이드북 후지산진경지도(富士山眞景之圖)에는 고미타케 신사가 후지산 북벽의 수많은 성지 중에서도 중요한 중계지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고메는 정상으로 이어지는 요시다구치 등산로가 후지산 고고메 주위를 도는 길인 오추도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후지코 순례자들은 고미타케 신사를 나카노미야(중앙의 신사)라고 불렀습니다. 후지산을 올랐다는 증명을 받는 것은 순례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때 고미타케 신사가 그 증명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목판에 인쇄된 증명서와 번호가 새겨진 지팡이를 구입하거나 심지어는 의복에 고슈인(증명 도장)을 찍을 수도 있었습니다.